

유성엽 “내년 총선 국회 제1당 목표”

평화당 원내대표 당선 이후 전북 방문, 포부 밝혀... “제3지대 신당 창당 조속 추진 경제문제 등 해결한다면 가능”

민주평화당 신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22일 전북을 찾아 내년에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 제1당도 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먼저 대표 경선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지금의 민주평화당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정당으로서 기본을 잘 갖추고 신진인사 영입과 경제정책을 통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제3세력이라 칭하는 부류가 사분오열과 지리멸렬의 모습으로 국민의 관심을 못받고 있다”고 평가한 뒤 “제3지대의 신당 창당을 조속히 추진해 경제문제 등을 해결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다면 제1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을 통한 제1당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안 중 경제관련 정책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방만과 나태의 상징이 된 공공부문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의 예산 축소를 얻어지는 재원 약 20~30조원을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개혁과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후 노동개혁까지 이루어진다면 위기의 경제성장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년 20조원 가량 사용되는 일자리 예산은 인위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걸어내야 한다”며 “공공부문으로 해결하려는 판단은 예산낭비이자 년센스 중 년센스다”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제3지대 구성을 통한 신당 창당을 이르면 7월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말한 후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전 부시장에 지지 않아”

한편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정읍·고창에 출마 의사를 밝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 서울부시장에 대해 “훌륭한 공무원으로 수도권 등에 어울리는 친구이다”면서도 “같은 지역구에 동기가 나서는 게 어렵지만 선거에서는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 조동용 의원 발의
화학사고 우려 '까막눈'
지자체 실질 대응 한계
사업장 정보공유 의무화



는 문제 양상이다. 건의안 발의를 주도한 조동용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

전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이 발의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 363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에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한화토탈 사고에서도 회사의 허술한 관리와 능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와 같은 기존 화학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수 년 사이에 계속된 군산 OCI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화학사고 사전 및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 간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사업장 관련정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공유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충북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 문 대통령,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2030년까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목표”

충청북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나라를 이끌 차세대 주력 분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바이오·보건의료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바이오헬스는 미래형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국가 3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돼 집중 육

성되고 있는 유망 분야다. 현재는 전통적인 제약·의료 등의 전문가 영역에서 일반인 중심의 ICT(정보통신기술) 영역으로 크게 확장되는 추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남은 선포식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에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의 정책적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 단계까지의 전 주기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을 포함해 빅데이터 활용, 정책금융 투자와 R&D(연구개발) 확대,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3배로 확대하고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집중 육성은 문재인 정

부 정책 철학인 '혁신적 포용국가'와도 맥이 닿아있다. 바이오헬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거니와 혁신신약 개발과 의료 기술 연구 등이 경제 활력을 이끌 매개가 될 것이란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에 정부는 유전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 100만 명 규모 환자의 국가 단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뉴시스

與 “검찰, 장자연 진상규명 안 하면 모든 수단 열어”

재조사 결과 발표 비판... 국회 차원 역할 필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관련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재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3개월 동안 재조사한 결과 고작 이거냐고 묻고 싶다”며 “국민들의 근본적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외압을 확인했지만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원지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할 길을 또 다시 막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혀야 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마

지 놓쳤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정은 과거 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길 바란다. 장자연·버닝썬 사건은 법위를 군림하는 특권층과 과거 청산 용기조차 없는 검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더 늦기 전에 실체적 진실규명 나서길 촉구한다. 만약 검정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 외면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과거 사위 결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힐 방안을 고민해 달라. 국회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